

결 정

2018-1-5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주 문

조선닷컴 2018년 1월 19일자 「“난 문꿀오소리... 단일팀 결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 「“난 문꿀오소리... 단일팀 결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라는 기사 제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꿀오소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기사에는 문꿀오소리의 멘트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뽑았다는 어느 청년이 “내가 뽑은 대통령에게 배신 당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문꿀오소리의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꿀오소리들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지도 않고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이기도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문대통령 지지자인데 단일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거짓된 제목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난 문꿀오소리... 단일팀 결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입력 : 2018.01.19 03:02 | 수정 : 2018.01.19 07:27

[2030, 이유있는 분노] [上]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 대학생들, 文정부 비판

"내가 뽑은 대통령에게 배신당해"

어제 靑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북 단일팀 반대' 1만명 서명

- 서울 12개大 총학에 물었더니

모두 "北환영행사 열 계획 없다"

2002년 9월 북한 응원단이 부산아시안게임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 부산 지역 대학생 등 860명은 'One Korea'라고 쓰인 셔츠를 입거나 한반도기를 든 채 부산 다대포항으로 나가 환영했다. 전국 대학마다 '한민족 응원단'이 꾸러지고, 인터넷에는 '북한 미녀 응원단'을 띄우는 글이 올라왔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때도 대학마다 통일 관련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17일 평창올림픽 공동 입장, 북한 응원단 파견,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 이용 등을 합의하자 2030세대에서 '환영' 대신 '비판' 목소리가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은 환호할 대상도 도와줄 을(乙)도 아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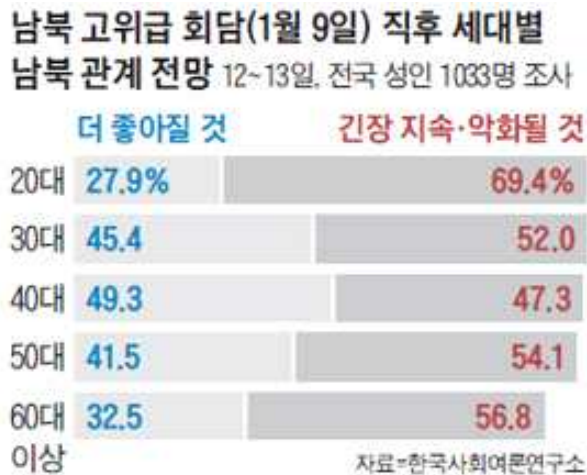
본지가 18일 서울 12개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을 위해 환영 행사나 공동 응원 행사를 열 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12개 대학 모두 "아니다"고 답했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환영 성명을 내거나 행사를 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유상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올림픽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5개 대학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전날 남북 회담을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3000건 이상 올라왔다. 서울대생들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인 '스누라이프'에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 이용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학생은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와중에 스키 리조트 지었다고 비웃은 게 언제인데 거기서 공동 훈련?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발표라 저렇게 발표한 게 맞는지 몇 번 봤다"는 글을 올렸다. 연세대생들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인

‘세연넷’에는 “마식령 스키장은 인권 탄압의 상징 아님?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나 알고 올림픽에서 홍보해주는 거냐”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까지 동원한 것을 들어 남북 합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국회의장실·S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9~10일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20대와 30대는 82%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다. 60대 이상의 반대 의견(67.1%)보다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글도 많았다. 주로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선수들을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합류시키기로 한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강대생 인터넷 사이트인 ‘서담’에는 “국가가 개인의 노력으로 따낸 출전 기회를 박살 내며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는 게 무슨 대의(大義)냐” “북한이랑 단일팀을 왜 해? 연평도(포격)를 사과했느냐 천안함(폭침)을 사과했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대학생 최규민(26)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라 비판한 정부가 남북 단일팀 구성 때는 선수들 동의도 안 구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중원(21)씨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독단적 선택을 한 것에 분노한다”며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8일 하루 동안에만 1만명이 ‘남북 단일팀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북한 핵실험 등으로 젊은 층에 쌓여 있던 반북(反北) 정

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졌다고 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공부와 취업으로 바빠 북한에 무관심했던 20·30대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독재국가라는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반감을 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경호(22)씨는 “북한은 더 이상 우리가 환호할 대상이 아니다. 올림픽 직전까지 핵으로 위협하던 ‘어제의 적’을 왜 정부가 환대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9/2018011900312.html>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2030세대의 부정적 반응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난 문꿀오소리... 단일팀 결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표제 아래 “대학생들, 文정부 비판”, “내가 뽑은 대통령에게 배신당해”, “서울 12개大 총학에 물었더니 모두 ‘北환영행사 열 계획 없다’” 등의 부제목을 내세워 문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20~30대 마저 남북 단일팀에 비판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사실 위 기사도 언급했듯이 지난 1월 9~10일 국회의장실·S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의 82%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고, 1월 15~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1월 23일 알앤씨치 여론조사에서도 문대통령에 대한 20~30대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난 문꿀오소리... 단일팀 결정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제목은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기사 본문을 살펴봐도 문꿀오소리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2030세대 모두를 ‘문꿀오소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기사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이다”는 20대 청년의 멘트를 실었지만, ‘대선 때 문재인을 찍은 사람’과 ‘문꿀오소리’는 다른 의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